



## 남도관광 효자 고맙다 KTX

### 개통 한달 방문객 줄이어... 광주·전남 관광업계 활기

목포 승객 1년 전보다 20% ↑  
여수는 무려 50% 넘게 급증  
나주·해남 시티투어 버스 운행  
증편·2단계 조기 완공 시급

지난 4월 2일 개통한 호남선 KTX가 광주·전남 관광 활성화의 큰 '효자'로 떠오르고 있다.

전체 노선이 완전히 운행된 것도 아니지만 개통 한 달 사이 기대이상으로 왕래가 늘면서 호남의 비교우위자원인 관광분야가 크게 활기를 띠고 있다.

4일 전남도, 목포시, 여수시 등에 따르면 호남고속철도 정차역이 있는 지자체마다 이용승객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주말이면 좌석 매진 사례가 이어져 숙박업소, 음식점 등이 외지인들로 북적이고 있다. 천혜의 자연, 풍부한 음식, 넉넉한 인심 등 매력 넘치는 광주·전남으로의 접근성이 향상되면서 인기를 발휘하고 있다.

호남고속철도 1단계(용산~광주승정)는 주말 32회의 용산~목포 노선을 최단 2시간15분(평균 2시간29분), 주말 20회 운행되는 용산~여수엑스포 노선을 2시간50분으로 개통 전에 비해 각각 54분, 30여분 단축시켰다.

목포의 경우 개통 후 4월 2일부터 26일까지 승차 4만3788명, 하차 4만2857명으로, 1일 평균 승차 1751명, 하차 1714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1일 평균 승차 1450명, 하차 1462명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각각 21%, 17.4% 늘어난 것이다.

목포시는 외지 방문객을 위해 매주 금·토 야경 시티투어에 나섰다. 5차례 운행에 267명이 됐다. 44인승 버스 1대로 부족해 추가 버스 투입 여부를 검토 중이다. 고속철도 관광객 유치 여행사에

인센티브를 주는 목포시는 흑산도·홍도 관광객 유치를 위해 코레일 측에 열차 배차 시간 조정 등을 요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여수엑스포역에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고속철도 개통 이후 주중 80%, 주말 90% 이상 좌석이 차 용산과 여수를 오가면서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이용객이 54% 증가했다. 서울과 여수가 '1일 생활권'으로 묶이면서 해상케이블카, 오동도 등 관광지마다 방문객의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전남도가 고속철 개통 이후 지난달 2일부터 15일까지 주요 관광지 41곳과 숙박업소 34곳의 동향을 전년도 같은 기간과 비교분석한 결과 1일 관광객과 숙박관광객 모두 증가 추세다.

이 기간 관광지 41곳을 찾은 관광객은 208만9000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192만7000명) 대비 8.4%가 증가했으며, 특히 고속철도가 정차하는 시·군의 관광지는 36만3000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25만2000명)보다 11만1000명(44.2%)이나 급증했다. 또 나주시와 해남군은 고속철 개통을 계기로 지역 관광지를 연결하는 '시티투어' 코스를 개발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하고 있다.

다만 고속철이 정차하는 목포시와 나주시의 숙박 관광객은 오히려 다소 감소하는 등 이상징후도 감지되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호남고속철도의 효과를 어떻게 하면 극대화하고 전체 시·군에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지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며 "가고 싶고, 머물고 싶고, 남에게 권하고 싶은 전남이 될 수 있도록 전략 수립을 서두르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호남고속철도 증편, 2단계(광주승정~목포) 조기 완공, 각 관광지와 연계 시스템 구축, 관광지 경쟁력 제고 등 과제 해결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여수=김정화기자 chkim@

인도네시아 도시민들 삶 바꾸는  
광주인권상 수상자 하피즈 ▶ 18면

**어? 성경이 읽어지네!**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 4시 (10주 과정)  
구약 과정 개강 062) 605-1112  
광신대학교 평생교육원



“오늘은 어린이 날 우리를 세상” 4일 광주시 북구 중외공원 야외공연장에서 열린 '제93회 어린이날 기념행사'에 참석한 어린이들이 잔디밭 위를 내달리며 즐거워하고 있다. ▶관련기사 6면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광주 온 문재인, 책임론 외면...이렇거면 왜 왔나

### “회초리 맞으러 왔다” “환골탈태 하겠다” 고개 숙여

### 알맹이 없는 호남 달래기... 광주공항서 항의 받기도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4·29 재보선에서 가장 뼈아픈 패배를 당한 텃밭 광주를 찾아 허리를 숙이며 호남민심 달래기에 나섰다. <관련기사 3면>

문 대표는 4일 광주를 방문해 “새롭게 창당하는 각오로 뺏속부터, 뿌리부터 환골탈태 하겠다. 완전히 새로운 정당을 만들겠다”고 새신을 거듭 약속했다.

그러나 이날 문 대표가 도착한 광주공항에서는 일부 시민단체 회원들이 “진정성 없는 방문”이라며 항의시위를 벌이는가하면, 당내에서도 준비되지 않은 광주행으로 오히려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또한 이날 광주 방문에서도

사과와 함께 당의 ‘전면 쇄신’만을 강조했을 뿐, 호남 민심 수습에 대한 ‘알맹이’가 없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문 대표는 이날 자신이 선거운동기간 중 찾아 1박을 했던 서창동 발산마을회관과 향토문화마을, 풍암동 부영2차 아파트 경로당을 돌며 “제가 부족했던 탓이다. 누구 탓을 하겠다. 면목이 없다”, “회초리를 한번 더 맞는 심정으로 왔다. 꾸짖어 주시면 겸허히 받아들이고 통렬히 반성하겠다”며 연신 고개를 숙였다.

문 대표는 “당내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겠다. 저부터 앞장서겠다”며 “새로운 인물을 영입하고, 유능한 경제정당 책임있

는 안보정당으로 흔들림없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진노(진노무현) 패권주의’에 대한 지적이 나오자 “진노니, 비노(비노무현)니 이런 계파 소리 나오지 않게끔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서는 ‘천정배 신당’과 관련, “광주 시민들이 바라는 것은 우리당이 더 크게 혁신하고 더 크게 통합해 호남 뿐 아니라 바깥에서도 이기는 당이 되라는 것”이라며 “시민들이 바라는 것은 야권의 분열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번 보궐선거에서 광주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한 것에 대한 사과도 함께 했다.

이에 대해 시민들의 질책도 이어졌다. 한 주민은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공천을 잘하라”고 했고, 다른 주민도 “지난해 시장 공천 때부터 참 소란스러웠고, 아쉬웠다”고 질타했다.

앞서 지역 시민단체 인사 30여명은 문 대표의 도착시간에 맞춰 광주공항에서 ‘문재인은 더 이상 호남 민심을 우롱하지 말라’, ‘호남이 붕어나’, ‘새정치연합은 각성하라’ 등의 플래카드와 피켓을 들고 시위를 했다. 이 과정에서 문 대표를 지지하는 시민들과 고성을 주고받는 등 가뭄은 충돌도 벌어졌다.

이날 비공개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선거 패배에 대한 냉엄한 분석과 대안 마련 등 진정성을 갖지 않은 상황에서 단순히 인사하러 가는것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에선 문 대표가 호남 주민들에게 약속한 ‘전면쇄신’의 당내 실현가능성을 장담할 수 없는데다, 호남 민심을 수습하기 위한 비전이 없었다는 지적도 있었다. /최현배기자 cki@kwangju.co.kr

## 관리비 年 162억...지방세 징수액의 2배 나주 혁신도시 ‘공동발전기금’ 조성해야

### 전남발전연구원 지적

나주 빛가람혁신도시의 관리비용이 지방세 징수액의 2배를 넘어 공동발전기금 조성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4일 전남발전연구원에 따르면 빛가람혁

신도시 조성 과정에서 지방세 감면 정책에 따라 2010년부터 2014년까지 295억2800만원(취득세 285억9800만원, 재산세 9억3000만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

올해는 58억7000만원(취득세 44억4700만원, 재산세 13억6000만원)의 지방세가 감

면될 것으로 추정된다. 2022년까지는 300억원의 세수가 추가로 줄어들 전망이다.

지방세 감면 정책에 따라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들은 취득세의 경우 전액 면제받고 법인세는 이전을 기점으로 3년은 전액 면제받고 이후 2년간 50%를 감면받고 있다. 또 재산세는 5년간 100%, 이후 3년간 50% 감면 혜택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빛가람혁신도시의 지방세 징수액은 지난해 9억8000만원에 그쳤고 올해는 77억원(전남도 3억원, 나주시 74억

원)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빛가람혁신도시 관리비용은 연평균 162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돼 관리비용이 지방세 수입의 2배를 넘고 있다.

이에 따라 빛가람혁신도시 공동발전기금을 조성해 광주시, 전남도, 나주시가 효율적인 활용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오늘 어린이날 휴무·6일자 신문 쉼니다

# 15<sup>th</sup> 가슴으로 하나되는 아리따운 여정

## 2015 핑크리본 사랑마라톤

**광주 상무시민공원 6월 14일(일)**

종 목 10km / 5km

참 가 비 1만원, 전액 한국유방건강재단에 기부됩니다.

기 념 품 기능성 마라톤 티셔츠

참가문의 핑크리본 사랑마라톤 사무국 1688 9744

참가신청 선착순 접수 [www.pinkcampaign.com](http://www.pinkcampaign.com)

검색창에 **핑크리본 사랑마라톤** 을 입력하세요.



<르가프 기능성 티셔츠>




AMOREPACIFIC CORPORATION

한국유방건강재단  
Korea Breast Cancer Foundation

후원 : 보건복지부, 한국유방암학회,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서구청, KBS광주방송총국, 광주MBC, kbc광주방송, 광주일보, 전남일보, 화순전남대학교병원

협찬 : 해라, 아리따움, 르가프, 55CHU